



## 공동화 통해 물류비를 20%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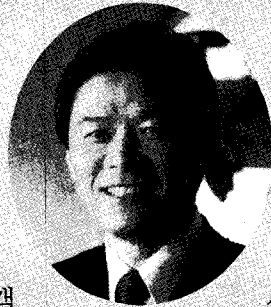
박대용 / 씨제이지엘에스 대표

한국물류협회가 선정한 한국물류대상 동탐산업훈장에 CJ GLS가 선정됐다.

박대용 사장은 "이번 수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차별화된 택배 사업을 통해 고객 만족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CJ GLS는 98년 Non-Asset Base의 사업 전략을 기본으로 식품, 제약, 및 잡화 중심의 3자 물류로부터 출발하여, 99년 국제물류, 택배사업을 시작한 토털 물류 서비스업체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다.

CJ GLS는 주문부터 창고관리, 재고관리, 수송, DB관리 등을 포함하는 Value Chain 상의 다양한 고객지향 서비스를 통해 기업 고객 확보, 홈쇼핑 전담택배, 여성 배송서비스인 엔젤서비스와 통합택배시스템, SQI(서비스품질지수)도입, EDI 도입, 고객사 주문 전담 전국 단일 콜 센터를 운영, 광역센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제물류 부문에도 진출, 내수와 연계한 수출입 물류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글로벌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어 국내 택배업체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C박 사장은 "오프라인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온라인 정보시스템의 경쟁력 부분 강화에 박차를 가하여 사업 초부터 차별화된 선진 물류 시스템인 주문관리, 창고관리, 배송 및 수송 관리 시스템 그리고 물류비 분석 시스템 등을 개발/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많은 정보화 투자를 진행하여 2001년 4월 통합 택배시스템의 오픈과 미국 EXE사의 창고관리시스템을 전국 25개 판매/제조 센터에 적용 완료했다.

박 사장은 "Total 물류시스템 구축과 공동화를 통하여 매출액대비 물류비를 약 20% 절감(8.1% 7.2%)하였으며, 재고감축 30%, 하역생산성 40%이상 향상키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타기업의 물류에 대한 관심제고와 업계에 있어서 물류혁신활동의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물류공동화 및 택배사업을 주력으로 물류비용의 대폭적 절감효과와 서비스향상의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물류공동화의 범위와 내용을 확산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는 CJ GLS의 활약을 기대를 해 본다. ko